

“호텔서 주방·모래놀이 해요”... 황금연휴 키캉스 행사 풍성

**경주 코오롱호텔 ‘드림키즈’ 공간
원목주방·마트놀이 세트 등 설치**
**레고랜드호텔 연령대별 특화
워터플레이·등대만들기 등 진행**
**포시즌스 호텔 서울 화가와 협업
‘드림 인 컬러’ 키즈 패키지 출시**



코오롱호텔 드림키즈 공간.

/코오롱호텔

최근 아이의 경험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은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자녀가 ‘골드키즈’로 불리고 있는 가운데 호텔, 패션 등 유통업계도 골드키즈들을 겨냥해 이색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업계는 그림놀이, 물놀이 등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황금연휴’를 맞아 주요 호텔업체들이 골드키즈를 위한 체험행사를 준비했다.

24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경주코오롱

호텔, 레고랜드 호텔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즈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구성에 나선다.

코오롱호텔 관계자는 “황금연휴가 있는 이번 가을 시즌, 아이들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을 것으로 예상해 새로운 키즈 콘텐츠를 오픈하게 됐다”며 “아이들과 부모 모두 편안한 호캉스를 누릴 수 있는

코오롱호텔에서 특별한 가을 추억을 쌓아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 코오롱호텔의 경우 다채로운 ‘키캉스’ 콘텐츠가 가득한 ‘드림 키즈’ 공간을 새롭게 선보였다. 주방놀이, 모래놀이, 색칠놀이 등 총 세 가지 콘셉트로 마련됐다.

주방놀이 공간에는 원목 주방 및 마트놀이 세트가 설치돼 역할극을 할 수

있다. 모래놀이 공간에서는 부드러운 모래를 활용해 촉감놀이를, 색칠놀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교안을 활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각 공간은 프론트에서 입장권 구매 후 이용 가능하다.

레고랜드 호텔은 연령대 별로 특화된 어린이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유아를 위해 내달 초까지 0.6m 수심의 야외 수영장 ‘워터 플레이’를 운영한다. ‘키즈 그라운드’에서는 동물안경과 바람개비 만들기(5~7세), 에코백 색칠하기(5~13세), 등대 만들기(8~13세) 등의 체험 콘텐츠를 제공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는 레고 브릭을 활용한 다양한 조립법을 배울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행복을 그리 는 화가’로 불리는 스페인 에바 알머슨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드림 인 컬러’ 키즈 패키지를 출시했다. 에바 알머슨의 작품이 포함된 에코백, 파우치, 드로잉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그니처 불독 인형까지 증정한다. 객실 내에는

키즈 텐트가 세팅돼 있어 그림놀이 외에도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하다. 패키지는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SAMG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2일 인기 어린이 캐릭터 ‘캐치! 티니핑’ 시즌 4를 공개하고 오프라인 공간 사업 확장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판교 ‘파미어스몰’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약 600평 규모의 ‘티니핑월드 판교’를 오픈한다. 해당 공간에는 미디어 체험 카페, 스토어와 문화놀이공간, 베이커리 카페, 코스튬 체험존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MLB키즈는 F/W 시즌을 맞아 ‘그린 플레이 컬렉션’을 공개하고, 출시 기념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기획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야구공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컬렉션을 살펴보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온 가족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팝업스토어는 내달 4일까지 스타필드 하남에서, 내달 17일까지 스타필드 고양에서 운영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이커머스 전쟁 진행중... 11번가, 살아있다”

**안정은 11번가 사장, 유튜브 출연
아마존 론칭이 버티컬서비스 강화
“신선식품·명품 등 분리, 반응 좋아”**



11번가 안정은 사장 EO 콘텐츠 화면./ 11번가

안정은 11번가 사장이 버티컬(전문관) 서비스, 슈팅배송 등을 통해 국내 e커머스 시장에서 11번가의 경쟁력을 높여왔다고 밝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안정은 사장은 최근 IT 관련 유튜브 채널 EO(이오)에 출연해 “600조 온·오프라인 리테일 시장에서 온라인은 200조 수준일 뿐이고, e커머스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특히 안 사장은 “커머스 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4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도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신임대표이사에 선임된 안 사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사에 대한 비전과 시장 상황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 사장은 “e커머스 시장의 1위가 결정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11번가

는 가격 경쟁력·셀렉션·배송경험 면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이뤄가고 있고, 최대한 고객 관점에서 이를 전하고 있다”며 “e커머스 시장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e커머스 시장은 쿠팡, 네이버가 50%에 육박할 정도로 독점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11번가 등 기타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성장 가능성과 기회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사장은 이번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이미 이커머스 1위는 정해져 있고, 시장이 결정됐다고요? 저는 그렇

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야후·네이버 등을 거치며 지난 20여년 간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프로덕트 기획자’로 일해 온 안 사장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강조하며 11번가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좋은 프로덕트(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관찰과 실행력에서 나온다”며 “고객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고, 발견하려는 노력을 해야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가 된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11번가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를 론칭한 데 이어 올해 버티컬(전문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안 대표는 “패션·식품·생필품을 각각 구매할 때 고객의 마음가짐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한 경험을 제공해야 좋은 구매 경험을 줄 수 있다”며 “백화점처럼 11번가 안에서 카테고리별로 관(버티컬)을 분리하는 작업을 통해, 신선식품(신선밥상), 중·리퍼(리퍼블리), 명품(우아러스) 등 버티컬 서비스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CJ그룹, 협력업체 대금 1500억 조기지급

추석 앞두고 ‘상생경영’ 앞장

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CJ그룹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CJ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체에 약 1500억원의 결제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계열사에서 협력사에 조기 지급하는 대금 규모는 CJ제일제당 약 1200억원, CJ푸드빌 약 132억원 등이며, 중소 납품업체 1200여 곳이 혜택을 받게 된다. 결제 대금은 오는 26~27일 순차

CJ그룹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결제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왔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체에 가중되는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CJ제일제당은 경쟁력 있는 협력사를 발굴해 필요자금 및 역량, 판로 등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즐거움 동행’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BGF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BGF

현대백그룹, 한양대와 모바일 앱 개발

‘오픈 이노베이션’ 드라이브

현대백화점그룹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에 이어 대학과 손잡는 산학협력까지 추진하며 ‘오픈 이노베이션’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혁신에 필요한 기술력과 아이디어, 서비스 등을 외부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들여오는 개방형 혁신을 일컫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한양대학교 창업

지원단과 산학협력을 통해 최근 O2O(온·오프라인 연계) 의류 수선 플랫폼 ‘얼핏(All FIT)’ 앱의 MVP(핵심 기능만 구현한 최소 기능 제품) 모델 개발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그룹 임직원 내부 테스트를 진행해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앱 개발이 끝나면 사업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말 신규유망 사업을 발굴하던 중 온라인 의류 쇼핑의 ‘페인 포인트(고객이 불편을 느끼

는 지점)’에 주목했다. 착장이 불가능하고 브랜드 별로 사이즈가 달라 구매 후 수선이 필요하더라도 고객이 직접 수선집을 찾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고객과 수선집을 연결하는 O2O 의류 수선 플랫폼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앱 디자인 전문가 이동엽(한양대 4학년·24세) 학생이 플랫폼 개발 역량이 뛰어난 김호준(국민대 4학년·24세), 박정민(국민대 4학년·22세) 학생을 모아 팀을 꾸렸고, 이들은 약 10개월 만에 ‘얼핏’ MVP 모델 개발을 완료했다.

/최빛나 기자

CU, 협력사 90여곳에 230억 조기정산

편의점 업계 1위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이 오는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사를 대상으로 정산금을 조기 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BGF리테일의 이번 조기 정산금은 총 90여 개 상품 및 물류 등을 거래하는 협력사에 약 230억원의 규모로 지급된다.

이번 정산금 조기 지급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지급일보다 20여 일 가량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3년부터 현금 사용이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정산대금을 사전 지급해 중소기업사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BGF리테일은 ▲한마음 힐링데이 ▲상생협력펀드기금 조성 ▲공정거래 및 존중 경영 모니터링 ▲협력사 우수상품 발굴 및 판로 개척 ▲중소기업 상품 동반성장물 도입 등 편의점 업계의 차별화된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활발한 해외 진출을 통해 협력사의 수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최빛나 기자